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살림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 186 호
2024. 9. 12

세선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Contents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 / 3	필리핀	고석진 선교사 / 5	국내선교	김고남 목사 / 6
국내선교	김용화 목사 / 8	국내선교	석재환 간사 / 10	국내선교	안종택 간사 / 13
국내선교	최고수 목사 / 15	독일	차상원 선교사 / 18	미얀마	박순영 선교사 / 20
베트남	지영환 선교사 / 22	필리핀	심미령 선교사 / 25	인도	유동윤 선교사 / 27
지부티	조성덕 선교사 / 29	캄보디아	김찬주 선교사 / 32	캄보디아	김득수 선교사 / 35
태국	김우종선교사 / 37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 / 40	세네갈	설재현선교사 / 42
콩고민주공화국	윤성운 선교사 / 44		후원자명단 / 47		



축구공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설재현 선교사)



세선회
Sehsun Global Missio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2-8 세선회관 5층
T : 02-325-4383~4 / F : 02-325-4382
www.sehsungm.org

발행처 사단법인 세선회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택수
편집 로뎀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4년 9월 12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선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감비아

유재동 안정순



다 지나가리라

지난 한 달 내내 우리 모두를 지치고 힘겹게 했던 더위가 오늘 아침에는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뒷 걸음질 하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날씨 못지않게 높은 온도 뿐만아리라 습도까지 동반하여 연일 괴롭혔던 그 무더위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올 여름은 날씨를 통해서 두고 온 선교지를 남들에게 쉽게 이해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또한 선풍기 바람도 필요 없이 지내온 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안식년 기간은 끝났으나

별써 한국에 온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만 심장대동맥 스텐트 시술 후 1년되는 시기에 입원을 해서 조영술 검사와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부득이 출국을 미루었고, 10월 28일 병원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안식년 기간 중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훈련과 세미나를 차례대로 받았고, 결혼 40주년 기념여행과 두 차례의 선교대회 그리고 부부학교를 참석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한국에

저희가 학교사역(BGS)을 통해 양육하여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낸 학생들 중 3명을 초청하여 10일간의 한국방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을 비롯한 입국서류를 어려운 과정을 거



쳐서 준비해야 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 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근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새문안교회와 주 후원교회를 방문했으며, 그동안 듣기만 했던 경복궁, 광화문을 비롯한 역사 문화재를 탐방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한강의 야경을 볼 수 있는 한강 유람선을 타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무사히 필리핀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남은 사역을 준비하며

요즘은 저희 부부는 선교지로 보낼 물건들을 수집하고 포장하는 일들로 분주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보관된 물건들과 현지에서 필요한 차량 2대(트럭과 스타렉스)를 컨테이너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재봉학교에 필요한 미싱(8대)과 관계설비 등을 보냅니다. 성도 분들의 정성으로 모아주신 각종 옷과 신발 등 여러 선교물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사역기간 중에 보내는 이 마지막 컨테이너가 무사히 도착해서, 계획하고 있는 재봉학교가 기술자 양성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봉학교 학생들의 기술이 숙련되면 학생들을 위한 기성 교복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군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현지교회와 여러 사역활동들의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에 최종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현지 실정에 맞는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 보려고 합니다.

기독제목

1. 늘 최고와 최선의 것들을 안겨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2. 2030년 종착 년을 향하여 온 마음과 힘으로 달려가는 선교 현장 되게 하옵소서
3. 컨테이너가 필요한 물건으로 채워지고 무사히 도착하게 하옵소서
4. 적합한 동역자로 한국과 필리핀 사역자를 선택 후 보내 주옵소서
5.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특히 노모님을 기억하옵소서



필리핀

고석진



세선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덥고 길었던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는 제법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번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사역지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주할 주택과 차량구입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얼마 전에 그동안 사용했던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철수하자 주인 가족이 집을 사용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선교지로 처음 나갔을 때부터 십 수 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2월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서 4~5년 된 중고 SU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까띠끼딴교회는 교회 전면 블록 쌓기와 실내 바닥타일 그리고 측면 옹벽 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출입문과 페인트 실내 청정작업이 남았습니다. 마숙교회는 내년에 건축을 마무리 하려합니다.

기도제목

1. 내년에 까띠끼딴교회와 마숙교회 건축을 끝낼 수 있도록
2. 자동차 구입비가 준비될 수 있도록
3.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닮교회

김고남 옥설



6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달

5월부터 시작된 제자양육은 A, B반으로 나누어 현재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에 빠지면 일대일 보충수업을 하니까 가능한 안 빠지려고 열심인 모습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6월부터 새가족부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배우시는 두 성도님을 보니 이제라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교회 옥상 방수와 주방 뒤쪽 베란다 방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비만 오면 베란다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왔는데, 공사 후 비가 많이 와도 새지 않네요. 옥상은 방수 공사를 한지 오래되어 한쪽은 구멍이 파인 채 덮여 있었는데, 점검하던 중 발견이 되어 옥상 전체를 방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7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달

7월 첫 토요일에 오이코스관계전도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25명 정도 참석하여 노방전도, 축호전도, 관계전도, 그리고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배우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반기 교회 사역은 영혼 구원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둘째 주일은 목장모임을 가졌는데, 바닷가로 나가 모임을 갖는 목장도 진지하게 말씀 나눔, 기도 나눔을 한 후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니 목장모임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젊은 성도들을 위한 목장을 조직하여 젊은 세대를 전도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기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름성경학교가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올해는 기준 4명의 어린이들과 한 어

린이가 데리고 온 3명의 5학년 남자아이들이 참여하여 총 7명의 어린이들과 7명의 교사가 함께 즐거운 여름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코너학습, 물총놀이, 인형극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아이는 친구 초청으로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목사인 저에게 '저는 오늘만 교회 온 거예요' 하며 못을 박던 아이였는데, 행사가 마치고 나서 어땠냐고 물으니까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는 행사의 '행'자만 들어가도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시상으로 받은 컵짜장면을 먹으면서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살이 찌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여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습니다.

8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달

8월 첫 주간에 여름휴가를 '방콕'(집에서)과 '파리'(파리올림픽을 보며)를 오가며 푹 쉬었습니다. 휴가 전 몸무게가 2kg 정도 빠지고 피곤하였는데, 한 주간 푹 쉬고 나니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달 동안 쉬었던 제자양육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목요클럽이 있는데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사별한 아픔이 있는 몇 분의 성도님들과 주중에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제목

1. 하반기 효과적인 전도계획과 전도를 통해 영혼구원과 양육이 계속해서 이어 지도록
2. 교회에 기도의 자리와 분량이 채워지도록
3. 가을에 아름다운 영적열매들이 맺어서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군 선교

김용화 이윤희



샬롬! 00사단 GOP부대에서 군 부대를 섬기고 있는 김용화 군선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사역

- 00사단 00 부대 예배
- 65여단 - 백석산교회 (토요일 오전 10시)
- 65여단백석대대 - 백석광현교회 (토요일 오후 2시)
- 65여단 포병대 - 고방산충성교회 (주일 오후3시30분)
- 포병여단169포병대대 - 열쇠교회 (주일 오후1시30분)
- 포병여단96포병대대 - 광현왕포교회 (토요일 오전11시)
- 백석대대 천미리중대 - 독수리교회 (주일 오후 4시)
- 전방 000소초예배 (화.수.목.금 오후1시40-4시30)

총 6개의 교회와 전방 000 소초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위문, 전도 사역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위로 많이 지쳐있는 용사들에게 팔빙수 위문전도로 또 다른 군 사역의 영혼 구원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전 부대와 전 GOP소초와 유격장 위문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백석산교회 찬양단과 화장실 리모델링

백석산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귀한 후원자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데 등등 세선회 선교비와 자비부담으로 하였고 본당 찬양단 단상 추가 리모델링도 자비부담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부대는 매일 매일 전도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선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더욱더 군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1) 허락하신 군 선교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하여
- 2) 복음마차(붕어빵) 전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 3)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도록
- 4) 백석산교회 화장실. 찬양단석 리모델링 부족한

물질(200만원) 후원을 위하여



유격훈련 팔빙수 전도



찬양단 석 리모델링



팔빙수 전도



화장실 리모델링 ✅



캠퍼스선교

석재환 이은영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동역자님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지난 6월 말 CCC 대학생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5-8일까지 남원에 있는 지리산유스캠프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CCC 청소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면 조금이라도 더위가 가실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수목이 춤을 추듯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비가 충만히 내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시고 시원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며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샤인 커뮤니티스

지역마다 청소년 순장들을 세우고 있는 샤인커뮤니티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경상도 사천에서 용남중, 사천여중 학생들과 꿈터 교회에서 연합채플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진주교대 CCC 순장들이 와서 모임을 섬겨주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김지윤B 간사가 담당하고 있는 파주‘교하고 커뮤니티스’를 함께 다녀왔는데 고3 준식 순장이 모임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엑스플로 7424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 휴닉스 파크에서 대학생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다. 전체 진행으로 섬기면서 수련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본부팀에서 샤인 간사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저와 동역하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 참여했기에 그들을 만나고 기도해주니 더욱 좋았습니다. 간사와 학생들 9,800명이 함께 참여하여 집회와 교육, 강의 등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 샤인부서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있는 대학생 80명과 함께 청소년을 향해 열려 있는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 CCC 청소년 캠프(8월 6-8일)

CCC 샤인에서 주관하고 광주지구가 주최한 광주 전남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남원에 있는 지리산유스캠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300명과 교사 63명, 90명의 CCC 대학생 순장들이 생활순장과 스탭순장, 친양팀으로 섬겨주어 은혜롭고 풍성한 캠프가 되었고 엑스플로 74의 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도시 전도를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THE FOUR” 전도 방법을 배우고 팀별로 나눠서 전도를 실시했는데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훈련받은 청소년들이 광주 양림동을 중심으로 전도 피켓을 들고 도시 전도를 펼쳐 총 161명을 만나 34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중에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캠프를 참여했던 교회 교사의 감사 후기를 나눕니다.

“신앙생활의 경험을 전혀 없는 아이들부터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까지, 각기 개성이 넘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매 순간이 긴장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어제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길에 아이들의 모습에서 고멜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나는 너 포기 안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캠프를 이루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CCC 간사님 순장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플로 74 기념 출판 감사예배(8월 17일)

CCC 나사렛 형제들 중심으로 ‘엑스플로 74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간증과 더불어 논문이 담긴 책이 출간되면서 기념 감사예배를 개포동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사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엑스플로 74의 역사와 성령의 불길이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300만명 이상이 8월 13-18일까지 모여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드려졌던 기도의 함성이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한국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 MT

오랜 동안 한국의 청소년 사역 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는 모임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 사역자 협의회 회원들이 강릉 경포대에서 모여 MT를 가졌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달려온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함께 모인 자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30개 단체의 회원 중에 19명이 함께 하여 밤이 늦은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니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 3시까지 열띤 토론과 함께 청소년 사역의 현장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사역으로 쌓인 긴장과 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사인 커뮤니티스가 청소년 주도적으로 잘 진행되며 매월 줌(ZOOM)으로 드리는 전국 사인체들을 통해 학교에서 연결된 청소년들과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3. 딸 보경(중3)이의 중3 2학기의 삶을 인도하셔서 고입을 준비함에 있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을 주소서.
4. 사인 커뮤니티스(스쿨처치), 동아리 사역, 청소년 멘토링 사역, 청소년 비전 트립, 사인비전 캠프, 광주 · 전남 청소년 캠프, 행정과 재정, SNS와 네트워크 사역, Prayground 기도 사역, 전도와 제자화 사역, HCCC 동문 사역, 청사협 모임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내년 1월 사인비전 캠프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장소 협조와 집회 강사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6. 9월 9-11일 본부 HR팀에서 주관하는 부서 BPMT(강력한 팀 빌딩)를 통해 건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좋은 팀웍을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7. 가정과 사역 속에서 재정적인 필요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잘 채워져 베푸는 자로 살게 하소서.



캠퍼스선교

안종택



얼마 전 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나눕니다. 그 말씀 중에 베스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도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행 26:24)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행 26:25)라고 대답하면서, 아그립바 왕을 향하여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변호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행 26:26) 이 구절들이 불연듯 제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했는데, 첫번째는 ‘온전한 복음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6월 24-28일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략 9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We, the Sent’라는 주제에 따라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서울 대 학생들은 52명이 참석했고, 서울 남 팀(서울 남쪽 8개 캠퍼스) 학생들은 277명이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이 4박 5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열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새친구반(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을 책임으로 섬겼는데, 500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했고, 이 중 80%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물

론 분위기에 취해서 한 지체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심령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분명 세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교회가 직면한 현실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제목

1. 9월 캠퍼스 개강 및 2학기 사역 전반에 관해: 2학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1학기에 연결된 신입멤버들이 2학기에는 제자훈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결시켜 주실 새로운 멤버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겨서 청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돋는 일들에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LTC 초급 훈련과 순장 제자화 훈련: 이번 2학기에는 신입멤버들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 화요일 총 5주 동안 LTC 초급 훈련과 이성교제 특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지만, 훈련 받기를 사모함으로 드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복음 안에서 지식과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순장 제자화 훈련 역시 같은 시기에 수요일마다 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비전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위해: 이번에 서울대 CCC 비전을 [서울대 CCC로부터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총만이 서울대에 임하게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의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서울대 CCC로부터 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과 '구원자'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통치가 모든 서울대 학생들의 삶에 임하도록 돋는 것'을 나타내는데, 정말 비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비전의 성취를 위해, 서울대 CCC가 1)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TFJ하는 삶을 살고 2)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SLM (학생 주도 운동)을 일으키고 3)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4.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잠시 후원을 중단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비와 생활비가 빠듯하게 매달을 버티며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셔서 재정적인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공촌교회

최고수 강계숙



이주민 한글학교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이주민 한글학교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라오스 근로자들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라오스 12명, 고려인 8명, 필리핀, 베트남 등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끔씩 이직하는 근로자가 있어 한글공부에 이탈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라오스 근로자들의 중심역할을 했던 루쫑 형제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직하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글학교가 1년이 지나면서 김포 학운공단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났습니다. 선교협력 목사인 임열수 목사님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7시까지 한 시간씩 전도하며 홍보지를 나누어준 결과가 이제는 외국인에게서 전화 연락이 와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숙련공으로 기술을 연마하여 장기간 근로자로 일하도록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2024. 제5차 몽골 거룩한 행군

기간 : 7.29~8.9

참가자 : 목사 4명, 서평택 새중앙교회 단기선교팀(20명)

올해에도 몽골 거룩한 행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에는 목사님 세 분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서평택 새중앙교회(양인열 담임목사)에서 20여 명의 단기선교팀이 함께 했습니다. 텔레지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열심

히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 분이 떠나고 난 주일에는 할류나 목사님 교회(에제니 알다르 초글랑)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할류나 목사님은



1998년 공촌교회 이주민사역 초창기에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일하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공촌교회가 연결되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어렵게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몽골 선교회의 도움으로 대수술을 받고 회생하셨는데, 그때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몽골에 돌아가 변화가 된 후 목사가 되어 지금은 길거리의 노숙자들과 알콜 중독자들을 돋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몽골 어요나 학생 건국대학교 대학부 입학

몽골 어요나 학생은 참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2015년 어린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따라 왔었습니다. 2017년 부모님과 언니가 다 돌아갔는데도 어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한국에 남아 6개월 가까이 학교생활을 하다 돌아갔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한국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 화면에는 모두 한글을 바탕화면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2022년에 몽골에 갔는데 고등학생이 벌써 한국 관광객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한국에 대한 희망을 키우더니 올 6월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건국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더니 합격하여 지난 8월 30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의 공부가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다른 학생들보다 두 살이나 어린데도 당당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몽골소식(테렐지 필그림교회 간벌드 목사)

샬롬! 목사님 기쁜소식이 있어요.

저희교회 진입로가 비만 오면 진흙 웅덩이로 변해서 오랫동안 동사무소와 시에

청원 하였으나 결정이 안 되어 저희가 사비를 들여 동네주민들과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공사를 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공사비 반을 주민 몇 가구가 부담했어요. 공촌교회의 선교비도 요긴하게 잘 보태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촌교회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어린 아기 좀 보세요. 2년 반 전에 펫덩 이로 우리 교회에 온 미혼부 딸이에요. 교회에서 공동육아로 돌보며 교회 관리 집사와 그 언니가 키우고 있는데, 밥도 잘 먹고 똑똑하고 예배시간엔 아멘도 잘 해요. 제가 일할 땐 조수처럼 따라다니고 이렇게 교회 쓰레기도 줍고 다녀요. 하나님이 테를지교회에 선물로 주신 아기 같아요. 목사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후진을 양육하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이고 테를지를 방문해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7일 테렐지에서 간벌드 목사.

기도제목

1. 9월에 한국 유학생으로 오는 몽골 학생들이 공촌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2. 한글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공촌교회에서도 예배와 한글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3. 몽골 할류나 목사(예제니 알다르 초글량)의 노숙자와 일콜 중독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4. 몽골 테렐지 필그림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독일

차상원 정진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독일의 차상원 선교사입니다. 저희를 위한 응원과 기도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민족 카페교회 사역

7월에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한인애 자매님의 송별 연주회를 저희 집에서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프간 출신 아이에즈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어서 더욱 축하의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좋아하는 참치김밥과 잡채, 그리고 김치를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에즈의 딸 리사와 우크라이나 출신 아미나는 떡볶이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독일과 스페인의 유로 2024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축구경기도 함께 보며 응원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알렉시는 요즘 행사장 장치 및 철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와 식사의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사역

프랑크푸르트 한마음 한인교회 난민 선교팀과 난민 캠프를 방문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는 난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고 매월 넷째 주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일 난민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던 난민 캠프는 새로 이사 들어온 강경 이슬람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더 이상 방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캠프에 협력 인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난민 캠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7월의 설교 말씀은 요셉이 팔려가고 모함으로 가게 된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청년들이 연극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아이들이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퀴즈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달 활동 시간에는 빨대를 이용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은 아이들조차도 소리가 나는 걸 듣고는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달에 생일을 맞은 아이들이 있어 축하해주고 케익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다행히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아이들과 야외에서 공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사역

*독일인 프리드리히 생일파티에서 만나 알게 된 다니엘라와 교제하였습니다. 정진의 선교사의 생일을 미리 축하한다며 선물로 예쁜 그릇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온 마스크 팩, 손수건, 스카프 그리고 파스를 전달했습니다.

*침례교 교단 목사님을 방문하여 교회도 둘러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제 하였습니다.

*집 근처 신학교 개교기념일에 머핀을 구웠았습니다. 학교 후원자들 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참여하는 동네 잔치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기도제목

- 차선교사 가족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 다민족 카페교회를 위해 - 난민 사역의 지경의 확장과 열매들을 위해 - 외국어의 진보(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 달(지혜)의 신앙, 건강, 학업, 진로, 새로운 비자를 위해
- 아들(명철)의 학업, 새로운 교회 정착, 군(병역) 문제를 위해 - 헬레나(우크라이나), 마리솔(칠레), 아이에즈와 그의 부인 사리파(아프간) 무하메드부부(터키)의 구원의 확신, 영적 성장과 교회 출석을 위해서
- 쿠셔누드(파키스탄)가 새로운 도시 울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우크라이나출신 아미나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박순영



미얀마는 깊은 우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거의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려 교단 산하 여러 교회들이 물에 침수가 되었고 우리 주일학교 여러 아이들의 집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이번 주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건지 햇빛을 보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흐린 날이 계속되니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감기와 코로나, 콜레라 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회 건축할 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번 기도편지에 말씀드렸던 유치원 교회 건축을 위해 기증받은 “싯뻥” 땅은 1필지로는(64평) 유치원을 하기에는 다소 협소하여, 부지 옆이나 근처에 한 필지를 더 사서 약 134평 정도에 건축하고자 돌아보았으나, 마땅한 땅을 구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어느 곳은 땅은 마음에 들었으나 한국 선교사님 사역지가 가깝고, 다른 한곳은 부지도 반듯하고 넓고 마음에 들었으나, 비포장도로에 너무 안쪽에 위치 해 있어 유치원으로는 적합지가 않아, 부득이 “싯뻥”지역은 포기하고 “위낫차웅”이라는 지역에 300평 부지에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 싯뻥 땅을 기증하셨던 선교사님이 위의 땅으로 대치해주셔서 이번 우기가 끝나면 건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으로, 지역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갑고 감사한 소식

그간 수년간 함께 기도해주시는 니니나잉(살인혐의, 소년원 수감) 이 9월 15일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니니나잉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니니나닝(당시 17세)은 다니던 학교에 여선생님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주동자 3명 중 1명으로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범죄자가 되어 꽃 같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고 이제 그의 생일 9월 14일에 만 20살이 되면서 9월 15일 석방이 됩니다.

매일매일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니니나닝, 그나마 소년원에서 만난 탁월한 드러머에게 드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니니나잉이 나오면 좋은 드럼을 사기 위해 전 교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고 1달이 채 안되어 80여 만 짫이 모아져 있습니다.(약 150만 짫 정도의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임명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기도편지에는 그의 교회에서의 찬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옷동산(집회시위 위반, 총기휴대 죄)은 5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이번 10월에 석방 가능성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디 그 소식대로 별 어려움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6년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켄소렛, 도피하여 카렌족 군대에 입대해 있는 텁두라도 민주화를 위해 그들이 바친 짚음이 부디 헛되질 않길, 있는 곳에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고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2기생 성경암송대회 1등상 수상

지난 8월 10일 이곳 현지교단 MRP (Myanmar Reformed Presbyterian)에서 개최한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리 기숙사 2기생 여학생 2명이 참가하여(따사, 넨센두) 1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단산하 50여개 교회에서 각각 2명씩 참가하여 두 명이 함께 로마서 8장 전장(33절)을 외우는 대회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이에 상금으로 50만 짫 (공무원 월급 2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평생의 추억이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다가 지금은 감옥과 도피 중에 있는 청년 옷동산, 켄소렛, 텁두라 소년원에 있는 니니나잉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
2. 다곤대 교회의 부흥, 워낫치웅 유치원 교회 건축을 위해
3.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베트남

지영환 김희수



늘 주안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손모읍니다.

평소보다 바쁜 일정으로 지냈던 7월과 8월이 지나가고, 좀 여유로운 9월을 맞이 합니다. 한국의 9월은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추석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의 시작이겠지요? 풍성한 가을날!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9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3팀이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 JDM팀 12명이 7월 중순 방문하여, 구찌와 빈푹(캄보디아 국경) 지역, 그리고 호치민과 나트랑에서 베트남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에 동역하였고, 8월 초 수원영통교회팀이 방문하여 현지 비공인 교회를 탐방하고 격려하였으며, 나트랑 반닌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열어 반닌교회 성도들과 이웃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8월 중순 방문한 춘천중앙교회 청년팀은 나트랑 깜란지역에 건축 중인 춘천중앙교회 90주년 기념 현지 교회를 방문해 격려하였고 더불어 나트랑 시내에서 3시간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칸선지역 소수부족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반납하고, 이 땅 베트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이 땅 베트남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베트남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약 3개월간, 총 10개 지역에서 206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였고, 그 중에는 350명의 불신자 어린이들이 함께하여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브엘세바 우물 8호 사역을 진행했으며, 현지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중앙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물 프로젝트(브엘세바 우물) 8호가 빈푹(캄보디아 국경)지역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우물사역이 진행된 현지교회는 보진교회이며, 늘 물 부족으로 힘겨워하던 중에 춘천중앙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귀한 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춘천중앙교회 90주년 기념교회로 나트랑 깜란지역에 틴선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바닥공사가 마무리된 후, 벽을 쌓는 중이며 10월중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모든 일정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손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러브’ 베트남 찬양집회와 동역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 ‘위러브’가 7월초 베트남 호치민에 방문하여 현지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베트남어 찬양 번역이 필요했는데, 저희 팀의 티엔 전도사 부부가 ‘위러브’

찬양집회의 모든 곡을 번역하고, 악보로 만들어 찬양집회를 도왔습니다. 이 땅 베트남에 좋은 찬양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블레싱 뮤직'사역과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티엔 전도사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며, 특별히 두 자녀의 진로와 비전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2. 9월 9일(월), 예정중인 아파교회 음향설김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음향기기들이 호치민에서 나트랑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안전하게 이동되고, 설치가 완료 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향기기가 잘 사용되어 교회의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아파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10월까지 '틴선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티엔 전도사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티엔 전도사는 현재 현지어 찬양 번역과 현지 사역(여름성경학교, 전도집회 등)관련 찬양 작사와 작곡, 음원 제작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직접적인 복음전도 어려운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티엔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의 아내가 10월 말 첫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9월에도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선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선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필리핀

심미령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6월 넷째 주 25-27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25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의 안양석수교회에서 열분이 단기선교로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14명의 교사와 20명의 보조교사들이 두 달을 기도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7월은 교사위로회로 TICM 아동부 교사들과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방학을 하나님께 바친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십니요. 또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해주십시오

7월에 교인 심방을 하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결석인원이 늘어나 가정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간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방학이 교회의 방학인줄 착각하는 어린이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간구합니다.

8월 개학을 맞아 아동부는 새 친구 초청 잔치를 하였습니다. 2주 동안 교사들이 준비하여 새 친구초청 잔치를 하였는데 새 친구 열명이 참석하였고 기존 아이들

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교회 50명의 학생과 굼바완 25명 뉴비전교회 14명 등 90명이 넘은 청년들이 교류의 장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헌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유스 캠프를 가진 청소년들도 있어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사들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연할 때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저를 피곤과 지침에서 위로하여 주심을 느낍니다. 선교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느끼는 이번 분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영피플수련회



인도

유동윤 유형란



사랑하는 세선회 선교 동역자들께!

한국은 올 여름 무척이나 더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열대야가 계속 되었다던 데, 이젠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나 기후 변화가 있어서 생태계 유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보도를 왕왕 듣습니다.

저희들은 여름 동안에 남아시아 전도 투어를 했습니다. 5주에 걸쳐서 스리랑카 전역을 돌며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팬더믹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남아시아로 전도 투어를 나갔는데, 정말 극한 더위로 여러 번 힘든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섭씨 40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스리랑카 전역을 돌며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지 사역자들과도 다시 만나서 앞으로의 사역을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요르단에서도 현지 선교사를 위한 마지막 때의 전도 방법 ‘엘리야 찰렌지’ 전도 훈련을 하였고 현지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열고, 이후에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전도 훈련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그간 비즈니스 선교와 선교 영상제작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현지 선교사들의 호응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9월 2-4일은 현지인 사역자 중심으로 ‘구속

‘사적 성경읽기’ 현장 세미나를 2박 3일동안 열게 됩니다.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깨우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는 터키는 그간 비자 정책이 바뀌어서 외국인들은 모두 20만불 이상의 집을 구입해야 거주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이곳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축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철수를 하는 등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주비자를 위해서 집을 구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세계의 선교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져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휘해서 힘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터키 흑해 선교사역을 위해서도 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팬데믹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방 곳곳에서 계속 전도훈련과 집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이곳 선교전략 기관인 ‘이스탄불 포럼’이 선교사들을 이끄는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마지막 때에 전도방법인 ‘엘리야 찰렌지’ 훈련 사역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유동윤, 유형란 선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부티

조성덕



뵙고 싶고 나누고픈 동역자님들께!

가는 세월 막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안타까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무더운 더위는 지부티를 능가하지만 어느 곳이나 힘차게 내뿜는 찬바람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네요. 계획했던 일정을 다 못 마치고 떠나야 하게 됨이 아쉽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는데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에 웬 새로운 사역을 시작 하려느냐며 묻는 이들에게 비전보다 만남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만나면 부담을 갖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쉽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읽으니 돌아설 수 없고 그냥 내닫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가 행하신다는 믿음은 여전합니다.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쓰임 받음이 감사하고 저는 제 힘을 다해 나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담당해 가시고 따라가는 저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봅니다. 우리 모두 같이 갑니다. 선교사는 가겠지만 사역은 바통을 이어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잊혀진 소말리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왔던 상록수 부대원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에버그린 유치원이 장성하여 고등학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곳은 강이 흐르고 있고 한 부족으로 이루고 있어서 그곳을 타고 흐르는 강물을 더 개발하여 더 큰 댐을 만

듣다면 온 동네가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목면공장도 돌려서 모든 지역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도 더 많은 학생들과 양질의 교육이 실행되어 나라의 새 일꾼이 배출되어져서 새로운 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에 있었던 폭동으로 말미암아 한 팀은 포기하고 기수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곳에 담대하게 와 주신 한국 학생들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현실을 보고도 주저하지 않고 와 주신 팀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니 감사하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사탄은 울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의 하나님의 일꾼이 납치당하여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부터로 들어가기 전, 저에게 소말리아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이기에 겪는 소문에 말려들지 않음이 좋다는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지부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정부에서도 손을 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내 식구가 잡혀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통신 수단이 마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래도 연락망이 펼쳐질 수 있는 곳에는 연락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컴맹이 되어 마비되니 꼼작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천사가 나타나 다시 전파 같이 원활하게 대화 나눌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부터 이야기

지부터는 제가 떠나온 후 에드워드가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 ”둡티“에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표현해 가야할 지요. 아직 정부에서 이렀다 할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번에 9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이들이 첫 맹학교 학생으로서 졸업하게 되므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협력하자 하면서도 시간을 안줍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안쓰럽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내를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계획하는 일

케냐 센터에 그동안 미루었던 저희 닭장이었던 곳을 개조하여 공부방과 도서실, 점자 책 만드는 작업실로 만들려 합니다. 이 점자책은 정안인들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같은 공간에 공명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재정관계로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에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세계문화교육협력회(World Education Cultural Aid)의 제의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시작하고 싶지만 공부할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꿈을 꾸는 장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돋고 싶습니다. 닭장이었기에 고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신대로 아이들을 하나님 의 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와웨루와 부라이언 이야기

방학 동안 센터에 와서 공부하면서 캠프에 참여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학비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주셔서 걱정없이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많은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열매 맺어 주님께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추석이 되고 온 식구가 하나 되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찬주 이미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5개월 긴 우기 에 들어섰습니다. 수시로 열대성 폭우가 내리곤 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폭포처 럼 쏟아지는 상태에서 건물 곳곳에 물이 새는 문제와 정전문제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은혜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8월간 8개 단기 선교팀을 인도해 주셔서 아무 문제없이 은혜 풍성한 선교팀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도 및 양육사역

출생 7개월 때 시력을 잃은 22살 Ratha자매가 동생 손에 이끌려 주일예배에 참석 했고, 예배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매 눈에 통증이 심해 동네병원을 방문하니 말도 안되게 눈을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 후 자매 아버지(Rasolto) 와 함께 프놈펜 엉뚜엉 국립안병원 방문해서 눈 검사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시력을 상실한 왼쪽 눈 각막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말라 있어, 뿌옇게 변하면서 통증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눈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CCC 방법으로 10분정도 간단하게 수술하면 통증 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장애 인등록이 되어 있어, 검사, 시술, 약 전액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한 후 다음주 8/6일(화) 시술하는 것으로 예약을 잡고, 약을 받고 캄퐁초낭에 잘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



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뒤 Ratha 자매 수술 잘되어 통증도 사라지고, 놀랍게도 시력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Ratha 자매를 통해 일가친척 모두 주께 돌아오도록, 점자를 잘 배워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구제사역

4월 4일 기공예배를 드렸던 가난한 분들에게 집을 제공해 드리는 60채 희망의 집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중보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 품질로 안전하게 집이 지어지고 이곳에 입주할 분들 선정을 위한 입주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전기도 없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소폰 가정에 단기선교훈련 온 중국 선교팀에서 전기도 놓아주고, 선풍기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자전거가 없어 멀리서 한 시간 걸어 다니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도 사주었습니다.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축 중인 희망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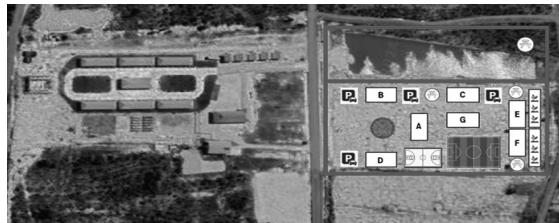
교육사역

비저너리스쿨 방과 후 수업이 매일 진행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선교팀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학교사역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선교팀이 오셔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교실을 잘 마쳤고 (하루 평균 50여명 참석) 마지막 날 저녁 마을이장님과 마을주민, 학부모를 모시고 비전 나잇 발표회를 채플에서 가졌습니다. 주제별로 창조, 죄, 구원, 새생명의 스킷드라마를 아이들이 공연했고, 찬양과 메시지, 기도로 마무리했고 준비한 롤케이크 우유를 참석한 모든 분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을이장님의 특별히 마을 아이들 잘 가르쳐주어서 고맙다는 축사도 해주었습니다. 우기 때라 비가 오면 늘 정전이 되었었는데, 행사기간 내내 정전이 안되게 기적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중보기도에

감사합니다. 7월부터 시작한 매주 토요일 한국어교실을 통해 복음과 한국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Jesus Village Project

자립과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 시험영농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기는 팔뚝 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텔라피아도 손바닥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메기는 예수 마을 내 호수에 방류 및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협력 중인 양문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자비량으로 농사선교사로 자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제안으로 검정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고아들과 합숙하며 신앙과, 교육, 연주를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일철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크리스천 메시아 음악원을 예수 마을 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위해 현재 한국방문 순회연주회 8월말-11월초까지 하고 있는데 건축모금이 잘 되고 기공예배 잘 준비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메시아 음악원 건축 프로젝트 2024

메시아 종길예술 대학교
: 음악/미술/영성/댄스/농장

A: 본관 - 아카데미 교실/사무실
B: 세미 컨서트 풍
C: 메시아 음악원 (Werk)
D: 메시아 예술원 (Gesamtkunst)
E: 미술
F: 학생 거주사부
G: 커뮤니티하우스

부대시설:
농고장
텃밭고장
농장

기도제목

- 예수마을 희망의 집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일하시는 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하자 없이 건축 되게 하소서.
- 토지 용도변경이 진행 중인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 방과후 학교와 한국어교실에 주님 기름 부으사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예수마을 리더들로 자라게 하시 고 저희 부부와 예수마을에서 함께 사역할 선교사님 부부가 성령 충만하여 영, 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Wat 어린이에게 매달 \$30 장학금을 전달을 시작했습니다. Wat 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셋 째 딸 예나 이직과 첫 째 딸과 함께 거활 안전한 집을 9월까지 구하게 하소서.
- 건강검진차 10월초 일주일간 한국방문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득수 이옥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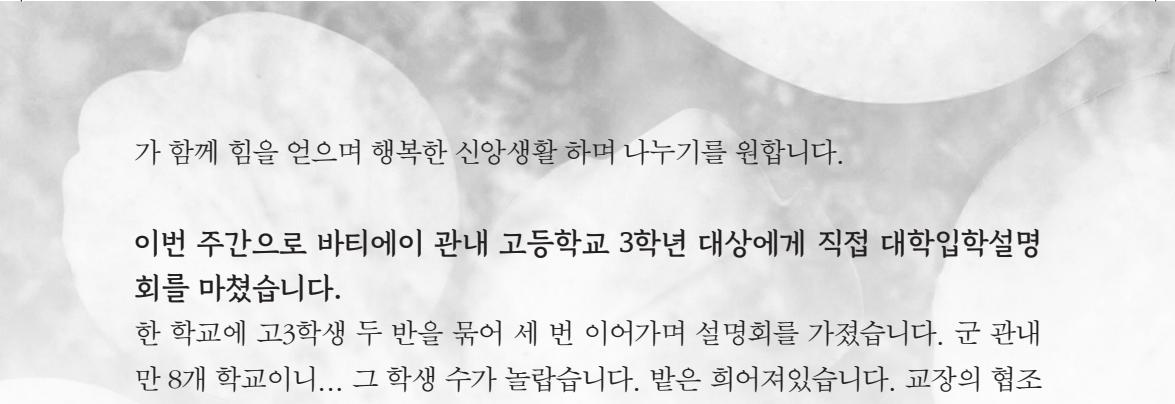


당크라상 한글학교 1기생 에이스 '깐마오'

화상통화를 해 오니 이게 웬일인가? 놀라움과 반가움에 서로 통화를 끊지 못합니다. 불편한 다리의 통증으로 일그러지며 선교지 일상과 사역을 멈춤없이 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 나갈까봐 걱정하던 스텝들이 이제는 어서 먼저 나가시라고 성화이더니 한국에까지 알려진 모양입니다. 한국에 치료받으러 나오신다면서요?"캄보디아 친구들이 함께 만나 뵙자고 뭉쳤습니다. 걷기 넘 불편하니 숙소 가까운 역사에서 번개 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찾아 다녔는데 이젠 이들이 달려옵니다. 10월이면 완전 철수 캄보디아로 달려와서 돋겠답니다. 때가 되었나봅니다

8월 4일~9일은 주평강교회 중학생과 교사가 팀이 되어 가진 선교는 선교사의 사역을 함께 체험하는 기획 선교 캠프였습니다.

5박 6일의 중딩 Youth Camp 유치원과 선데이스쿨을 잇는 중학생 대상의 Youth Club 과정이 탄생하였습니다. 자국민에 의해서 자국민에게 교육선교로 다가는 대단한 도전의 첫 출발입니다. 첫아기를 낳는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이 선교사입니다. 주평강팀 짧은 시간을 매우 길게 만들며 고립된 영적전투 현장 사역지에 쏟아 붓는 것 같이 풀어놓은 보따리와 대학운영지원은 어려움에 찌든 대학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선교는 서로 살아나게 합니다. 처음 사랑과 믿음 열정과 영성 감사와 헌신 함께 하는 선교가 빚는 맛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멈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교임을 깊게 체험합니다. 함께 하는 선교는 선교지 일상을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선교 동역자 여러분 모두



가 함께 힘을 얻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으로 바티에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에게 직접 대학입학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한 학교에 고3학생 두 반을 묶어 세 번 이어가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군 관내 만 8개 학교이니... 그 학생 수가 놀랍습니다. 맡은 희어져있습니다. 교장의 협조와 함께 교사들의 동참으로 열린 설명회는 아주 진지하였습니다. 코로나 3년의 공백으로 아주 대학의 존재도 잊혀졌다가 새롭게 다가갔습니다. 2025학년도 기대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사립기독교대학의 모습이 학생 수로 드러나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유수한 대학들처럼 캄보디아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선교 원 팀이 되어 멈춤 없이 함께 해 오신 선교동역 후원선교사들이 맷게 하는 열매입니다.

기도제목으로 함께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의 반전과 반전으로 새롭게 열어 가실 선교지를 감동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선교사 몸 만들기로 10개월의 일상을 극한의 통증도 즐기게 하셨습니다. 마무리 집중 치료로 보호장비 없이 걷고 뛰며 선교완주 해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니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은혜의 파도타기를 합니다. 사역의 발이 되어 함께 뛰는 차량도 준비되어 마무리 사역에 동반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교 다음 이어가기에 동역하며 헌신 할 분들이 나서도록 힘을 주옵소서!

당분간 선교편지 대신 선교현장을 리얼하게 보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페이스북/ Bii Cambodia Deuksoo Kim

블로그/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 바티에이국제대학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김우종 에스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시 1-5:13

주의 동역자님들께

7월과 8월은 미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 오엠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 시편 105 편(매일성경 8/27) 말씀, 주께서 하시는 구원의 파노라마를 오엠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동역과 선교사, 현지인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 생명 비전 교회 선교 집회(7/12-14)를 오엠 아시아 리더들, 선교선 리더들, 오엠 리더들과 강준민 목사님 내외, 임혁 선교 목사님 린치 태국 대표까지 5명이 파송교회 창립 15 주년을 맞아 “새생명의 비전으로 열방으로! 땅 끝까지!” 표어를 가지고 선교세미나와 말씀, 간증집회가 열리면서 주말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시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저희부부를 파송한 교회가 오엠 태국을 시작해서 2020년에 현지인 대표를 세워 지금까지도 잘 섬기는 린치 선교사가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1-4 부 예배에 간증을 나누게 되어 온 성도가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오엠과 교회들과 선교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어 선교 현장과 선교 동향을 듣고 나누며 기도와 보내는 선교로 연결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부탁 드립니다.

오엠 동아시아 지부 리더십 수련회

싱가포르(7/21-24) 참석하면서 마침 싱가포르에 정박하고 있는 둘로스 흡 선교선을 방문해서 메콩지역 현지인 둘로스 흡 장학금 혜택으로 선교선에서 섬기는 미얀마 출신 예레미 선교사와 교제하고 인터뷰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형제는 매우 명철하여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으나 고국의 내전과 가정의 재정 문제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선에 입항한지 벌써 1년이 지나 book fair assistant manager로 섬기고 있습니다.

메콩 지역 현지인 둘로스 흡 장학금이 계속 모금이 되어서 열정은 있으나 재정으로 힘든 메콩지역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주님의 뜻을 알고 장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7/25-8/2)에서 오엠 말레이시아 스태프 세미나에서 “기쁨의 재정 동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끌고, 이곳에서 스태프의 한 청년 바카오 형제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말레이어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말레이 언어로 세워진 교회들이 동 말레이시아에 많으나 선교적인 동역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대표인 조셉 선교사와 앞으로 동역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카르만두, 네팔(8/4-9)에서 저희 아시아 리더십팀들이 오엠 네팔 리더십 컨설테이션과 현지인 지도자 훈련을 참석해서 앞으로 훈련을 마친 50명의 현지인 리더들을 산에 있는 도시로 파송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팔은 300명의 현지인들이 오엠 스태프로 섬기는 가장 큰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부탄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저희가 리더를 키우고자 준비하는 부탄 프로젝트에 함께 할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잊혀진 이 땅에 오엠 사역자로 네팔에서 둘로스 흡 선교선에서 훈련을 받고 부탄으로 파송되는 부탄 프로젝트에 4명의 현지인들의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놈펜, 캄보디아 (8/26-29)을 방문해서 오엠 캄보디아 대표를 섬기던 네덜란드 출신 요한 선교사를 위임할 캄보디아 현지인 소체스 형제를 만나고, 캄보디아에서 섬기는 한국 선교사님 12분 (4팀)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오엠 캄보디아 현지인 대표와 함께 동역하며 원팀으로 이끌어 가도록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 현지인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재정적 자립도 만들어 가는 지혜와 자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현지인 제자 리더십 훈련 마치고 마을로 전도팀 파송 김정희 선교사 코칭 아카데미 수료 새로 임명된 오엠 캄보디아 리더-소체스 판 김우종 선교사가 오엠 말레이시아 이사모임(8/30-9/1)이 있는 동안 김정희 선교사는 펜양, 말레이시아 (8/24-30) 오엠 국제 코칭 아카데미를 이수하는 마지막 모임과 수료식으로 참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 학습을 잘 마치고 오엠 동아시아 코칭 코치로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박재덕 이순안



샬롬! 새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강과 자유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회 초등학교 졸업식

개교 5년 만에 첫 졸업식이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8월 초부터 졸업식을 위해 기도와 미팅을 통해 차근히 준비하고 졸업식에서 박재덕 선교사가 메인 스피커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졸업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가 춤추고 노래를 즐기다보니 졸업식만 총 4시간 30분이 들었는데 흐트러짐 없이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풍성한 아프리카 고유 음식인 필라우에 뒤진 닭, 셀러드, 과일, 음료수로 풍성한 식탁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J-couse 단기팀 사역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에 있는 기독 연구소라는 곳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단기사역팀이 방문하여 은혜롭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훈련된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와서 이곳 학생들에게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예수 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신앙고백과 감사를 나누는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베이스에 짊고 활기찬 청년들의 웃음과 열심이 저희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

려드리고 기독연구소 팀원들과 리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성경 나눔 프로젝트

파송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지원한 성경 나눔 프로젝트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1단계로는 저희 사역지 학교와 베이스내 현지교회 멤버들께 성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를 제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성경 구입할 서점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먼저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급해 주었고 매주 토요일은 다같이 성경통독 시간을 갖고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9월부터는 수업을 통해 말씀 읽기를 학년별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베이스내 교인들에게도 9월부터 성경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차, 3차 계획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교회를 돋고 오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도 성경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 방학과 7학년 국가시험

8월 30일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잠시 두 주간 중간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9월 13일 국가에서 전국 7학년들께 학력평가 고사를 진행하기에 방학기간 두 주도 7학년들과 지도교사들은 출근하여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을 끝으로 7학년들은 학교를 떠나 그들이 진학할 secondary school에서 예비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내년 1월에 입학하여 수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세네갈

설재현 이혜화



세네갈 북동쪽 사막 끝자락 R마을에는 일년에 두 달, 가장 아름다운 우기철이 되어 ‘초록초록’한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강우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이웃들의 얼굴도 밝습니다. 저희는 약 2달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후, 한창 모링가 프로젝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링가 프로젝트

이들의 점심은 주로 기름으로 볶아진 볶음밥 비슷한 것에 고기나 (마른)생선, 야채, 소스 등이 올라가 있는데, 밥 양에 비해 고기나 야채 생선의 양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세끼 모두를 밥으로 먹고 싶을 이들에게 야채나 고기 따위, 즉 되지도 않는 균형있는 식단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일이기도 합니다. 과일을 사는 집은 극히 드물고, 사더라도 바나나 하나를 몇 명이서 나눠먹는지... 저희 동네 아이들은 콤포스트를 만들려고 마당으로 들고 나간 바나나 껍질도, 망고 껍질도 다 달라고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 위에 얹을 야채 고기도 충분치 않은 판에, 과일을 산다는 생각은 그저 사치이지요. 그래서인지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7일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장사꾼들이 좋은 과일을 가져올 이유도 없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전통 빵, 저녁은 주로 수수같은 작물로 죽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배고픔은 설탕을 가득 넣은 차로 배를 채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들의 식습관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드디어 모링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부터 땅을 빌리고, 토지를 개간하느라 애쓰고, 퇴비를 만들어놓고 이제 우기철이 끝나면 모링가 씨앗을 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고 나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축구공 사역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은지라, 오후 5시, 축구공을 빌리러 와야 하는 아이들이 때로는 참지 못하고 오전부터 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두 세 차례 못보던 아이들이 주섬주섬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온 것을 보면서 ‘공 하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수도에 가면 잊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느 때 부터인가 아이들을 위해 축구공을 사오는 일이 되니,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그 다음 스텝을 여쭤보게 됩니다.

희연, 그리고 가정

저희 딸 희연이는 수도 다카르에 기숙사 생활이 전 학기보다는 많이 익숙해져 가나 봅니다. 잠시 한국 방문 두 달 동안 콧바람을 쐬고 온 것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마을에 돌아와 보니 양철지붕 쪽에서 빗물이 많이 들어와 이곳저곳 집안이 물에 잠겨 한참동안 청소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막 끝자락 마을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기’이기에 불평만 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국에 계신 양가의 아버지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이 염려마저도 다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선회 가족분들 모두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윤성운 김경희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년만에 찾은 한국은 이전 보다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아들 윤사무엘 선교사의 결혼, 그리고 20여 교회의 방문과 기도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김경희 선교사 친정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천소식은 남은 감정을 추수될 겨를도 없이 보내 드려야 했습니다.

장모님의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급하게 다시 고마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에 남은 감정들이 무거운 마음을 갖게 했지만 다음세대를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여지보다 크기에 제4회 청소년 복음 캠프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17절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24명, 훈련생 31명이 8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십자가가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진리가 결론되게 해라!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복음캠프는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로 이루어진 캠프였습니다. 7년 전에 이곳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시에 저희를 보내시고 2명의 청소년과 시작된 공동체에서 복음의 선포, 예비 선교사 훈련, 그리고 한국의 동역자들의 섬김까지 합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그동안 준비된 청년 선교사 4명과 용감한 정예병 과정의 4명, 그리고 김경희 선교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통역 없이 현지어로 진행된 복음캠프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현재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받고, 또한 전하며, 전하는 메시지에 전심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예수의 다음세대를 보는 것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의 시간이었고,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을 더 깊이 알아가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캠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선교 사로 헌신하여 공동체에 지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두 23명에 이르렀습니다. 지원자의 자격도 14세에서 17세로 제한했는데도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달려 나오는 다음세대를 보면서 헤브론 바이블 아카데미의 약속의 말씀인 요12:24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 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라.”

한국 일정으로 미루어 두었던 유치원 건축도 기도로 준비해 주신 귀한 현금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업의 이익금을 아낌없이 저축해 두었다가 아프리카의 다음세대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귀한 향기는 이곳의 다음세대 심령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곳은 돌아 볼 곳이 많습니다. 한 중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도 살아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당장에 먹을 옥수수 죽조차 없어서 몇 끼를 짖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4곳에 꽉 차있던 난민들이 이제는 6곳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교육도, 예배 생활도, 일상적인 농사일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벌써 12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귀한 사랑의 현금이 1,300여 가정에게 10kg짜리 옥수수 가루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가 닿은 대로 난민촌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고 믿음을 잊지 말 것을 선포할

날을 준비해 봅니다.

이제 다음세대 선교사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10명을 선발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한 대가지불이 치뤄지더라도 반드시 행하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한결음을 뗄 뿐입니다.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새로 입소하는 신입생들의 외치는 소리가 공동체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며 자시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더욱 주의 사랑을 불들고 달려갈 선배들의 모습도 마음에 그려 봅니다. 새로운 지체들을 맞을 준비를 하며 선교사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이 감당 해야 할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주시는 힘입니다.

3월부터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더욱 직면하며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의 모든 삶 중심에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유치원 외벽 미장공사



복음캠프 섬김이 모임



남민촌에 옥수수가루 1300포대 전달

후원자 명단

2024년 6월

임 원 현 금
선 교 후 원 금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흥은경
고명지

조성덕선교사

LGDP신우회 강현주 권오현 김남훈 김아영 김영 남공현 박영덕 석태임 신반포교회
신반포교회14여선교회 음토토아프리카 이수복 임선영 강삼열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전주시천교회 정혜인 제주영락교회 조자경 최경숙 퇴계원교회 하이사랑교회 흥제성

김득수선교사
박재덕선교사

김경희 김도영 비산동교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참빛누리교회
박현경 예닮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형순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황선미

2024년 7월

임 원 현 금
선 교 후 원 금
조성덕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흥은경
고명지

LGDP신우회 권오현 김광임 김남훈 김아영 김영 김영화 김인재 남공현 문정미 박영덕
석태임 시천교회 신반포교회 신반포교회14여선교회 안순철(김윤희) 음토토아프리카 이명숙
이상진(하이사랑교회) 이수복 임선영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정혜인 제주영락교회 주영아
최경숙 퇴계원교회 하이사랑교회 허세드청년부 흥제성
김도영 비산동교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참빛누리교회
박현경 예닮교회 이은영 이형순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박형건

2024년 8월

임 원 현 금
선 교 후 원 금
조성덕선교사

김예상 김희성 박도준 정동수 최영인 최일신 흥은경
고명지

lgdp신우회 권오현 기장총회 김남훈 김수열 김아영 김영 김윤민 김정숙 김하영 남공현
라이브오브칠드런 류환열 무명 박성하 박영덕 박춘희 방정환 새노래교회 석태임 신반포교회
신반포교회 권사회 신반포교회14여전도회 신반포교회총여전도회 신익호 외상선교회
음토토아프리카 이극범(김숙희) 이수복 임선영 전경자 전주동부교회 전철한 정혜인
제주영락교회 조성국 조순덕 조자경 주영아 차상영 최경숙 하이사랑교회 허세드청년부 흥제성
황경애

김득수선교사
박재덕선교사

김도영 비산동교회 아돌람세계선교회 이시영 인도차이나선교회
박현경 예닮교회 유성수 이은영 이형순 장석교회 정태희 허윤정 황선미



세선회

Sehsun Global Mission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2-8 세선회관5 층 세선회
T : 02-325-4383~4 / F : 02-325-4382
www.sehsungm.org



▲ 점자책을 읽고 있는 맹아 (조성덕 선교사)

세선 뉴스레터

Sehsun Newsletter

통권 186호

발행처 사단법인 세선회

발행일 2024년 9월 12일

발행인 정동수

편집인 김택수

편집집 로뎀커뮤니케이션

세선회 조직

이사장	정동수
부이사장	최일신 최영인
이사	김경식 김예현 김예상 김희성 나영주 박도준 흥은경
자문위원	석세일 오세철 홍달천
감사	이강석
총무	김택수

협력선교사

김비아	유재동(안정순)
독일	차상원(정진희)
미얀마	김군배(최기숙), 박순영
베트남	지영환(김희수)
세네갈	설재현(이혜화)
인도	유동윤(유형난), 아룬다스(타나살린)
지부티	조성덕
탄자니아	박재덕(이순안)
태국	김우종(김에스터)
페루	김태식(김명화)
필리핀	고석진(조순자), 김주호(김한나), 심미령
캄보디아	김득수(이옥란), 김찬주(이미숙)
케냐	정동철(이미림)
콩고민주공화국	유성운(김경희)

국내선교

군인교회	/ 김용화(이윤희)
캠퍼스선교	/ 석재환(이은영), 안종택
공존교회	/ 최고수(강계숙)
예닮교회	/ 김고남(옥설)

후원방법

- KEB하나은행 164-890002-77504 / 국민은행 032-25-0003-114

- 신한은행 100-017-544191 (예금주: 세선회)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5-4383~4)

세선회 웹사이트에서도 PDF 버전으로 세선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hsungm.org

사단법인 세선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적 생활 훈련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따라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삶으로서 사회에 기여 봉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어 선교사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